



© 김영순, 모지애

마음은 어떻게 풀어요?

활동1. 마음을 느끼는 네 가지 방법

1. 마음을 보고, 듣고, 만지고, 먹을 수 있다면?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.

마음을 볼 수 있다면, 어떤 색과 모양일까요?

()

마음을 만질 수 있다면, 어떤 촉감일까요?

()

마음이 소리를 낸다면, 어떤 음악이 들릴까요?

()

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, 무슨 맛일까요?

()

2. 이제, 위의 답을 바탕으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!



북극곰 블로그에서 다양한 책놀이를 만나보세요.



© 김영순, 모지애

마음은 어떻게 풀어요?

활동2. 친구의 마음에 다가가기

1. 친구의 마음은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. 어떤 친구가 나를 갑자기 피하거나 화난 것처럼 보일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ex) 친구에게 건넬 수 있는 말

“무슨 일이 있어? 기분이 안 좋아 보여.” / “혹시 내가 뭔가 기분 상하게 했을까?”
“너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.” / “그때 내 말이 속상했니?”

이제 친구의 마음이 궁금할 때, 내가 직접 친구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.

2. 궁금했지만,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친구가 있나요? 그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써 보아요.

(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아요.)



북극곰 블로그에서 다양한 책놀이를 만나보세요.





© 김영순, 모지애

마음은 어떻게 풀어요?

책놀이 활동지 교사용 가이드



대상: 초등학교 2~3학년

『미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?』는 질문과 비유를 통해 감정 어휘를 넓히고, 타인의 마음에 다가가는 태도를 기르는 그림책입니다.

활동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해 주세요.

활동1. 마음을 느끼는 네 가지 방법

활동 전, ‘마음’과 관련된 익숙한 표현을 이야기하며 주제를 환기합니다.

아이들이 감정과 감각(색깔이나 형태, 촉감, 맛, 소리)을 연결하도록 도와주세요.

그림을 완성한 뒤 친구들과 마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.

활동2. 친구의 마음에 다가가기

아이들이 ‘친구가 나에게 화난 것처럼 보일 때’ 실제 경험을 떠올리게 해 보세요.

예시 문장을 바탕으로,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표현을 연습합니다.

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짧은 말풍선 형태나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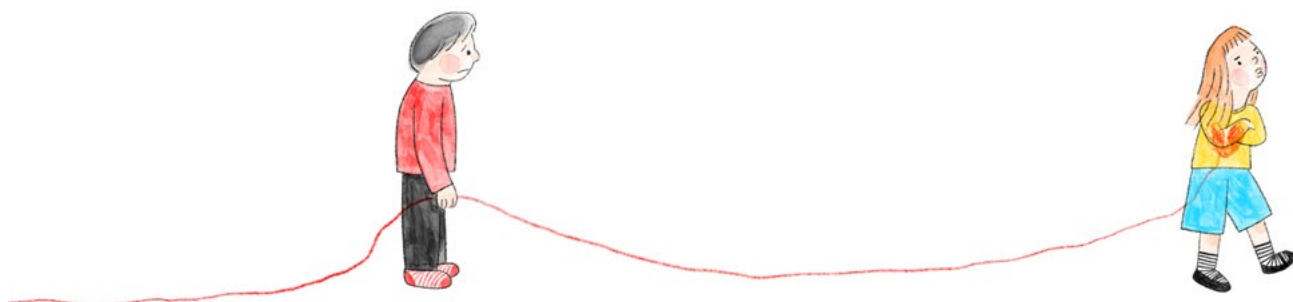
전체 지도 팁

감정은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알려 주세요.

아이들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며, 서로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주세요.

활동이 끝난 후, ‘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색일까?’ 등 짧은 마무리 질문으로 활동을 정리합니다.

※ 이 활동지는 정서 표현 및 공감 능력 증진을 위해 비언어적·언어적 표현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



북극곰 블로그에서 다양한 책놀이를 만나보세요.

